

세계 185개국 휴교...학생 90% 수업중단

유네스코 진단,코로나19 여파 15억 4천만명 학교 못가 취약지역 여학생 성취취 우려...여성교육 지속 투자 촉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185개국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면서 여성 청소년의 중퇴율이 증가, 교육에서의 성별격차 공고화, 조기 임신과 강제 결혼, 성적 착취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유네스코(UNESCO)는 전 세계 학생 89% 이상이 현재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네스코는 여학생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학생의 학교 폐쇄 및 원격학습 정책 개발 참여, 임신 소녀들의 등교 보장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등록된 어린이와 청소년은 15억 4000만 명이다. 여학생은 7억 4300만 명이며, 이 중 1억 1100만 명이 교육받기 힘든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다.

여성의 학교 등록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아프리카의 말리, 니제르, 남수단은 휴교하면서 400만 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퇴학당했다. 난민 캠프에 사는 이들 소녀에게 학교 폐쇄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서 있는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은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네스코는 밝혔다.

유네스코는 "많은 여학생은 학교 문이

열리면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일부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와 경고는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의 교훈으로부터 나온다. 당시 시에라리온의 17세 소녀였던 크리스티아나는 "학교는 버려진 등지처럼 텅 비어 있다. 학교에 있는 것은 임신-결혼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내 친구들이 임신하고, 일부는 조혼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는 학교 폐쇄로 소녀들이 집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

게다가 소녀와 그 가족은 기본적인 필수품 때문에 성매매하기도 한다.

에볼라 당시 가장이 전염병으로 숨지면서 생계 문제가 막막해지자 많은 이들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

으로 딸을 결혼시켰다.

그때 시에라리온 일부 지역은 청소년 임신이 65%까지 증가했고, 이는 학교가 제공했던 보호 환경을 벗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소녀 중 상당수가 최근 임신한 소녀의 등교를 막는 정책 때문에 교실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유네스코는 전했다.

유네스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교사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여학생 교육에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솔루션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낮은 기술과 성별 대응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휴교 상황에서) 읽기와 쓰기 자료를 집으로 보내고 라디오와 TV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내각 사상 첫 화상회의 코로나19 확진 후 런던 총리관저에서 자가 격리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맨 왼쪽 위)가 지난 31일(현지시간) 각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각료 전원이 화상으로 영국 내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80만명 넘어서

사망자도 4만명 돌파 미국 사망자 중국 추월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환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미국의 환자 수는 17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는 3400명을 넘기며 중국을 앞지르게 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지난 31일 낮 12시 18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를 82만 3479명으로 집계했다. 누적 사망자는 4만 636명으로 통계가 잡혔다.

국가별 환자 수를 보면 미국이 17만 5067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10만 5792명, 스페인이 9만 4417명으로 이들 3개국의 감염자 수는 이른바 '발원국'인 중국(8만 2278명)의 확진자 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어 독일(6만 8180명), 프랑스(4만 5232명), 이란(4만 4605명) 등의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만 1591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8269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미국의 사망자 수가 3415명으로 올라가며 감염자 수에 이어 사망자 수에서도 중국(3309명)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3393명으로 나타나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최근 유럽 국가에 이어 미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 19일 1만명을 넘은 이후 10여일만에 17만명을 넘을 정도로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도 전 세계 누적 확진자를 82만4529명, 사망자를 4만672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미·유럽, 마스크 착용하나...정책 선회 조짐

WHO 여전히 '불필요' 고수 트럼프 "전국민 착용 검토"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정책을 변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열에 합류했고, 미국도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놓고 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과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면 스카프를 사용하라"며 "마스크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일정 기간에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든 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는 시나리오를 예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매우 진지한 고려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확진자 애완 고양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반응 "사람에 전파 증거는 없어"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여성의 반려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반려묘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홍콩 에버튼 지역에 사는 이 반려묘의 주인은 최근 홍콩 센트럴 지역의 한 술집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나타냈으며,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현재 위중한 상태이다.

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반려묘는 동물 보호 시설로 보내져 격리됐다.

이에 앞서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여성의 포메라니안 품종 반려견과 30세 여성의 셰퍼드 품종 반려견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홍콩 당국은 "이번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반려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고,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지금껏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데리고 있던 개 27마리와 고양이 15마리를 보호시설에 격리했다. /연합뉴스



맨해튼에 늘어난 '임시 영안실' 냉동트럭 미국 뉴욕 맨해튼의 백루 병원 밖에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냉동트럭 인근을 지난 31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영안실이 부족해 냉동트럭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0명"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입에 올리면 구속

"사복 경찰이 감시...언론도 통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만 해도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공공 장소에서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SF는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길거리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코로나19를 이야기 하면 사복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언론에서 코로나19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학교, 병원, 직장 등에 배포하는 책자에서도 코로나19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RSF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코로나19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4천 명 이상이 나온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